



강원대학교 자원생물환경학과 명예교수

한대성

(韓大成)

40여 년 전 청운의 꿈을 안은 어느 청년학도가 젊음과 열정을 불살랐던 곳. 그러나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흘러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명예교수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카프리스섬'을 동경하는 로맨티스트이자 좌우명이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타인에 대한 따뜻한 함과 세심한 배려를 지닌 젠틀맨이며, 모든 행동의 근본은 참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백행지본 인지위상(百行之本 忍之爲上)의 가훈에서 보듯 인내와 절제된 학문을 강조해 온 학자. 또한 아름다운 선비이자 교육자이며 자상한 아버지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의 본을 보여주는 계석(溪石) 韓大成(73) 강원대 명예교수를 호반의 도시 춘천 교정에서 만나보았다.

오직 제자들 위한 '사랑의 전령사·나침반'

오랜 세월의 흐름에도 캠퍼스 곳곳에는 韓교수의 품격 있는 향내를 지워내지 못한 듯 은은히 묻어난다. 정년 퇴임한지 7년이 지났지만 요즘도 끊임없는 학문연구와 후학들을 위한 봉사,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유지하며 현직에 있을 때와 다름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의 심의위원으로, 韓교수가 창립한 「춘천환경운동연합」에서의 봉사활동, 「농화학과 동문회」 상임고문으로 '동문회 소식지' 발간과 후배들을 위한 논문심사, 조언 등 모교와 이웃을 위

“땀 흘린 것만큼 노력한 만큼만 내 것이 됩니다”

하여 꾸준히 헌신 봉사하는 韓교수를 보며 재직시절 분명 동료, 선후배로부터 존경과 신망의 대상으로 덕망이 높은 학자였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오직 농화학의 외길만을 걸어온 韓교수는 학자로서의 평가에 대해 “학교에서의 보직이나 농약관련 기관의 협력업무, 환경운동을 위한 사회봉사 등 학문연구 이외의 일들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전공학문 연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나태한 학자였다”며 그동안 일궈놓은 업적과 성취능력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韓교수는 강원대학교 최장기 교무

처장, 대학원장, 한국농화학회 회장, 농약관리위원회 심의위원, 농약안전성 소위원회 잔류 및 독성 위원장을 역임하며 모교의 성장과 위상을 확고히 다져놓은 선각자였음에 틀림없다.

사석에서의 역할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제자들에게는 늘 “스스로에 대한 노력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일의 성취를 보장해 준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다. 일명 제자 애프터서비스라 하여 졸업 후에도 서신을 통해 격려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며, 사제시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사랑의 전령사이자 110여명의 주례를 맡을 만큼 제자들에게 있어 韓교수는 인생길의 나침반이다.

“제자들이 사회의 핵심일원으로 큰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히는 韓교수에게서 이 같은 역할이 결코 과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업적이나 사회기여를 재직시절 가장 보람된 일로 꼽는 사회통념과도 다른 것이어서 시선을 붙잡기에 부족함이 없다.

韓교수의 제자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작물보호업계에 전력투구하는 모교 허장현 교수를 비롯, 세계토양학회 차기회장에 선임된 양재의 교수, 이길녀암·당노연구소의 김성진 소장, 정보화학의 조부연 상무, 강원대 혈관연구소의 김영명 소장, 원통 중·고교의 장헌 교장 등 자기의 소임에 전심전력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마냥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

1 농업생명과학대학 2 306



친환경유기농법 고집·농약사용량 30% 감축, 대안 될 수 없어

재직시절 아쉬움과 애환도 함께 물었다. 韓 교수는 오랫동안 농약관리위원회 특히 잔류성 분야에 활동할 당시 “특정회사 농약의 존재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 기억과, 수 백 건의 방대한 심의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 곤혹스러웠던 당시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웃음 짓는다.

이어 전공학문과는 떨어진 시점이지만, 재직시절부터 친환경농업 일변도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소신을 밝히는 연륜있는 노학자와 후련한 인터뷰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약 전공자로서 명칭변경되는 현실에 아쉬움을 느끼며 대중들에게 농약이 환경과 농산물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이해·보급시키지 못한 책임을 절감한다”고 자책한 韓 교수는 “현재 개발·제조되고 있는 제품들이 환



1. 강원대 허장현 교수와 교정을 거니는 모습
2. 마음속에 동경했던 아름다운 '카프리섬' 정상에서의 모습.
3. 한국농화학회 회장 시절 창립 40년만에 학회 사무실 이전 축하연

경·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점검과 규제를 거쳐 탄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 슬회하고는 “장래 100억의 세계 인구를 상정할 때 친환경유기농법 고집과 농약 사용량 30% 감축계획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좀더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정책이 아쉽다는 질책성 소회이자 작물보호제에 대한 혁신적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정문일침(頂門一鍼)인 셈이다.

최근 웰빙 바람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세론에 대

해 韓 교수는 “어떤 사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단순·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도 “농약은 독성물질이고, 인체에 오랫동안 잔류하며, 생명의 기능과 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인 만큼 현재의 '농약은 안전하다, 안전사용기준을 지킨 농산물은 안전하며, 농약잔류허용량은 일생동안 섭취해도 인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양

을 말한다’ 등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해 정부 및 학계, 지도·연구기관, 작물보호업계 등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인식 변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젊은 후학들을 위해서는 “요사이 무엇이나 쉽게 얻고 쉽게 버리는 풍조가 몸에 배어 있음이 목격된다. 땀 흘린 것만큼, 노력한 만큼만 내 것이 된다는 평범한 말을 전해주고 싶다”면서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고 말하는 韓교수에게서 인내와 근검절약, 검허함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정리:김민순>